

# 이슈브리프



- 20대 총선과 여성의 대표성  
김원홍 |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 제20대 총선 주요정당 여성 정책공약 비교  
이현출 | 건국대학교

## 20대 총선과 여성의 대표성

김원홍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 1. 서론

2016년 4월 13일에 이루어진 제20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선출된 여성 국회의원은 총 51명으로, 26명의 지역구 당선자와 25명의 비례대표로 구성되었다. 이는 전체 당선자 가운데 17%에 해당하는 것으로, 지금까지의 국회의원 선거에서 여성 당선자가 차지하는 비율이 가장 큰 결과이다.

역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여성 국회의원은 오랫동안 한 자리 수에 머물러 있다가 제16대 선거에서 이전보다 크게 증가하였다. 국회의원 선거에서 여성 당선자의 비율은 제16대에서 약 5.9%, 제17대와 제18대 총선에서는 13% 이상이었고, 제19대 선거에서는 15.7%, 그리고 이번 선거에서는 17%에 도달하였다. 이러한 현상은 2000년 여성할당제 도입 이후 여성국회의원이 꾸준히 증가한데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 비례대표직 30% 여성할당제가 권고조항으로 적용되었던 2000년 제16대 총선을 기점으로 여성 당선자는 증가하여, 2004년 비례대표직 50% 여성할당제와 교호순번제의 권고조항이 작동한 2004년 제17대 총선에서는 비례대표 뿐만 아니라 지역구 여성 당선자도 증가하기 시작하였다. 제16대 국회의원 선거 이후 지금까지 여성 당선자 수는 소폭 상승하는 것에 머물렀다. 특히 지역구 여성 당선자의 수는 제17대 총선에서 10명, 제18대 총선에서 14명, 제19대 총선에서 19명으로 꾸준히 증가하였으나 정체된 모습을 보였다. 이에 비해 이번 제20대 총선에서는 26명의 여성 후보자가 지역구에서 당선되었을 뿐만 아니라, 당선자들의 대부분이 다선 의원이라는 점에서 여성 정치인의 양적·질적 성장이 뚜렷하게 나타났다.

여기서는 금년 4월 13일 실시하였던 20대 총선에서의 여성의 대표성을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표 1〉 역대 여성국회의원 비율

대(연도)	의원 정수	남성의원수(명)	여성의원수(%)
1(1948)	200	199	1(0.5)
2(1950)	210	208	2(1.0)
3(1954)	203	202	1(0.5)
4(1958)	233	230	3(1.3)
5(1960)	291	290	1(0.3)
6(1963)	175	173	2(1.1)
7(1967)	175	172	3(1.7)
8(1971)	204	199	5(2.5)
9(1973)	292	275	17(5.8)
10(1978)	231	223	8(3.5)
11(1981)	276	267	9(3.3)
12(1985)	276	268	8(2.9)
13(1988)	299	293	6(2.0)
14(1992)	299	291	8(2.7)
15(1996)	299	290	9(3.0)
16(2000)	273	257	16(5.9)
17(2004)	299	260	39(13.0)
18(2008)	299	258	41(13.7)
19(2012)	300	253	47(15.7)
20(2016)	300	249	51(17.0)

자료: 김원홍, (2016), 「여성과 정치」, 「여성학 강의자료」, 건국대학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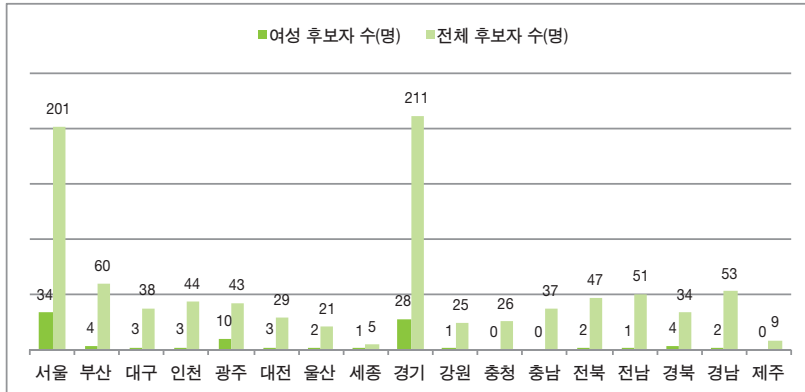
## 2. 지역구 여성 후보 및 당선자

### 가. 후보자

20대 총선에서는 전체 934명 지역구 후보자 가운데, 여성은 98명으로 10.49%를 차지하였다. 이러한 수치는 지난 제19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나타난 지역구 여성 후보자 비율인 7.0%보다 증가한

것이다. 2000년 비례대표 여성할당제 도입 이후 지역구에도 영향을 주어 여성의 정치적 대표성은 크게 증가된 것이다. 지역별로 여성 후보자 수와 비율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서울과 경기 지역은 각각 34명과 28명의 여성 후보자가 지역구에 출마하여 활발한 선거운동을 전개하였다. 부산과 대구, 인천, 대전, 울산, 전북, 경북 등에서 비슷한 비율로

여성 후보자가 등장하였던 것에 비해, 광주에서는 전체 후보자 43명 중 10명이 여성 후보자로 상대적으로 여성 후보자의 비율이 좀 더 높았다.



자료: 중앙선거관리위원회(<http://info.nec.go.kr>), 검색일: 2016년 4월 10일.

[그림 1] 지역별 지역구 전체 후보자 및 여성 후보자 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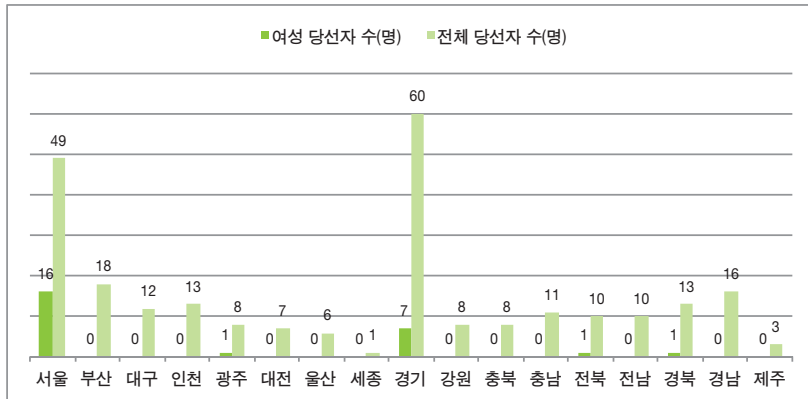
정당의 지역구 공천과정에서 여성할당제 30% 적용여부가 주요 이슈로 부각되었던 제19대 국회의원 선거와 달리, 이번 제20대 총선에서는 여성 후보자를 선출하는 공천 과정에 두드러진 논의는 발견할 수 없었다 그렇지만, 이번 총선에서 여성 후보들은 경선에서 선전하고, 여성 우선 추천지역에 일부 공천되었다. 그 결과 20대 총선에서 새누리당에서는 여성 후보자가 16명으로 전체 후보자의 6.45%를, 더불어민주당은 25명의 여성 후보자가 전체의 10.68%를, 그리고 국민의당에서는 9명의 여성 후보자가 공천을 받아 전체 후보자의 5.25%를 차지하였다. 한편, 그리고 정의당은 전체 후보

자의 11.76%인 6명의 여성 후보자를 내세웠다.

#### 나. 당선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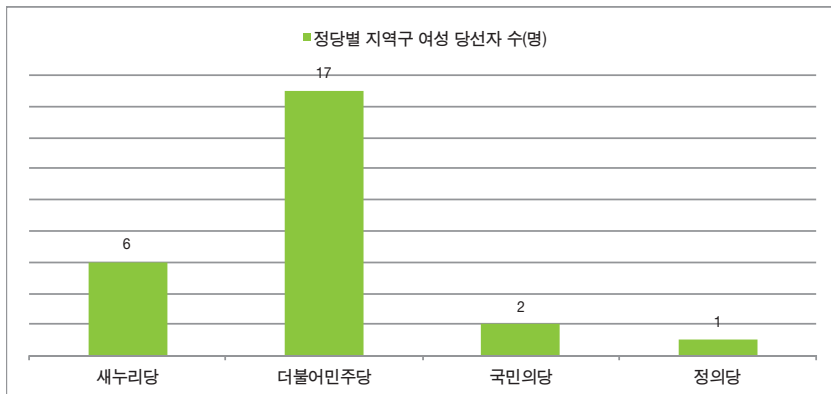
지역구 여성 당선자는 총 26명으로, 전체 당선자의 6.74%이었다. 지역별로 살펴볼 때, 서울에서 16명의 여성 후보자가 가장 많은 수의 국회의원으로 선출되었으며, 경기 지역의 여성 당선자가 7명, 광주와 전북, 그리고 경북 지역에서 각 1명의 여성 당선자가 배출되었다.

정당별로는 더불어민주당 17명의 여성당선자가 가장 많았고 그 다음이 새누리당 5명, 국민의당 2명, 정의당 1명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자료: 중앙선거관리위원회(<http://info.nec.go.kr>), 검색일: 2016년 4월 10일.

[그림 2] 지역구 전체 당선자 및 여성 당선자 수



자료: 중앙선거관리위원회(<http://info.nec.go.kr>), 검색일: 2016년 4월 15일.

[그림 3] 정당별 지역구 여성 당선자

선출된 여성 국회의원들의 면면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서울에서는 나경원(동작구을), 이해훈(서초구갑), 이은재(강남구병), 박인숙(송파구갑) 등 새누리당 소속 후보자들과, 전해숙(광진구갑), 추미애(광진구을), 서영교(종랑구갑), 유승희(성북구갑), 인제근(도봉구갑), 손혜원(마포구을), 한정애(강서구병), 박영선(구로구을), 김영주(영등포구갑), 전현희(강남구을), 남인순(송파구병), 진선미(강동구갑) 등 더불어민주당 소속 후보자들이 당선되었다.

경기 지역에서는 새누리당 소속의 박순자(안산시단원구), 정의당의 심상정(고양시갑)을 비롯하여, 더불어민주당의 백혜련(수원시을), 김상희(부천시소사구), 이연주(광명시을), 유은혜(고양시병), 김현미(고양시정)이 선출되었다.

그 밖에 광주와 전북에서는 각각 권은희(광산구을), 조배숙(익산시을) 등 국민의당 후보자가 당선되었고, 경북에서는 김경재(포항시북구) 새누리당 후보가 당선되었다.

〈표 2〉 지역구 여성 당선자 명부

지역	선거구명	당선자 성명	소속 정당	비고	지역	선거구명	당선자 성명	소속 정당	비고
서울	광진구갑	전혜숙	더불어 민주당	재선	서울	송파구갑	박인숙	새누리당	재선
	광진구을	추미애	더불어 민주당	5선		송파구병	남인순	더불어 민주당	재선
	중랑구갑	서영교	더불어 민주당	재선		강동구갑	진선미	더불어 민주당	재선
	성북구갑	유승희	더불어 민주당	3선	광주	광산구을	권은희	국민의당	재선
	도봉구갑	인재근	더불어 민주당	재선	경기	수원시을	백혜련	더불어 민주당	초선
	마포구을	손혜원	더불어 민주당	초선		부천시 소사구	김상희	더불어 민주당	3선
	강서구병	한정애	더불어 민주당	재선		광명시을	이연주	더불어 민주당	재선
	구로구을	박영선	더불어 민주당	4선		안산시 단원구	박순자	새누리당	3선
	영등포구갑	김영주	더불어 민주당	재선		고양시갑	심상정	정의당	3선
	동작구을	나경원	새누리당	4선		고양시병	유은혜	더불어 민주당	재선
	서초구갑	이혜훈	새누리당	3선		고양시정	김현미	더불어 민주당	3선
	강남구을	전현희	더불어 민주당	재선	전북	익산시을	조배숙	국민의당	4선
	강남구병	이은재	새누리당	재선	경북	포항시 북구	김정재	새누리당	초선

자료: 중앙선거관리위원회(<http://info.nec.go.kr>), 검색일: 2016년 4월 15일.

이들의 학력별, 직업별, 연령별 특성에서, 대체로 '대학 이상의 교육을 받은 50대 이상의 중장년층 고학력자로, 제19대 국회의원'이 다수를 차지하였다. 석사과정을 수료한 당선자가 11명이고, 박사도 5명에 달하였다. 또한 직업군에 있어서도

제19대 국회의원뿐만 아니라 전직 국회의원을 포함한 정당인, 그리고 교수 및 변호사가 주류를 이루었다. 연령 면에서는 30대 이하는 전무하였고, 50대가 절반 이상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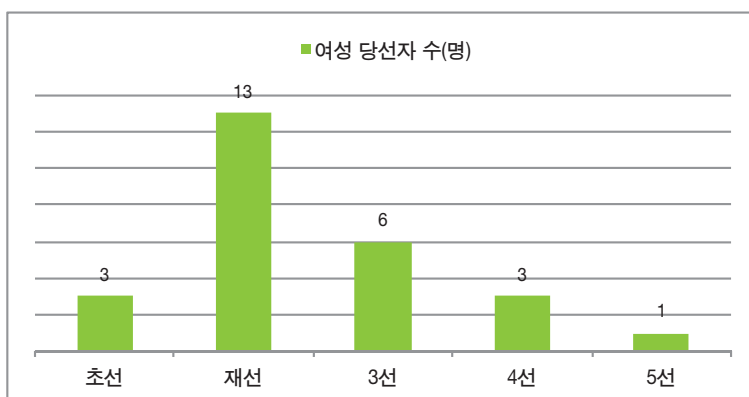
무엇보다도 제20대 총선 지역구 여성 후보자들



의 당선 결과에 대한 가장 큰 특징은, 지금까지의 국회의원 선거에서 가장 많은 결과인 동시에, 여성 당선자들이 대부분 다선 의원이라는 점이다.

지역구 여성 당선자들 가운데 초선 의원이 3명에 불과한 반면, 재선에 성공한 당선자는 13명에 이른다. 또한 이해훈, 박순자(이상 새누리당), 유승희, 김상희, 김현미(이상 더불어민주당), 심상정(정의당) 당선자가 3선 의원으로, 나경선(새누리

당), 박영선(더불어민주당), 조배숙(국민의당) 당선자가 4선에, 그리고 추미애(더불어민주당) 당선자는 5선 의원이 되었다. 여기서 3선 이상의 중진 의원이 되면, 국회 상임위원장을 비롯한 당 지도부에 참여할 수 있다. 따라서 여성 당선자들의 다선 경력은 정치적 영향력의 확대라는 점에서 커다란 의미를 가진다.



자료: 중앙선거관리위원회(<http://info.nec.go.kr>), 검색일: 2016년 4월 15일.

[그림 4] 선수(選數)별 여성 당선자 수

한편, 제19대 국회에서 지역구 국회의원으로 활동하고 있으며 제20대 총선에서 연임에 성공한 후보자는 14명으로 전체 여성 지역구 당선자의 약 3분의 2를 차지한다. 그 외에도 제19대 국회에서 비례대표로 활동한 당선자 역시 4명이며, 제18대 국회의원이었으나 제20대 총선을 통해 다시 국회의원이 된 당선자는 5명이다. 동일한 지역구에서 연임에 성공한 당선자들이 많다는 사실은, 과거와 달리 여러 여성 지역구 당선자들이 자신이 속한 지역에서 오랫동안 정치활동을 전개하면서 획득한 결실로 평가될 수 있다. 이와 동시에 비례대표 국회의원에서 지역구 국회의원으로 발돋움한 경우에는 당선자 개인의 역량뿐만 아니라 정당의 역할

도 간과할 수 없다. 제19대 국회에서 활동한 비례대표 국회의원 가운데 새누리당에서는 13명이 모두 지역구 출마를 도전했지만 공천을 얻지 못했지만, 더불어민주당에서는 한정애, 전현희, 남인순, 진선미 비례대표 국회의원이 자신의 의정활동 경험을 살려 제20대 국회에서 지역구 국회의원으로 활동하게 되었다.

### 3. 비례대표 여성 후보 및 당선자

제20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비례대표 여성 당선자는 각 정당이 획득한 정당투표의 득표율에 따라 의석수를 배분한 결과에 따라 결정되었다. 선거에

참여한 정당들 가운데 15개 정당에서 비례대표 여성 후보자를 선정하였고, 그 중에서 비례대표 국회의원을 배출한 정당은 새누리당,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 정의당이다.

〈표 3〉 정당별 비례대표 후보자 및 여성 후보자 수

(단위: 명)

정당명	여성 후보자 수	전체 후보자 수	정당명	여성 후보자 수	전체 후보자 수
새누리당	26	44	불교당	0	1
더불어 민주당	19	34	기독교당	1	3
국민의당	9	18	노동당	1	2
정의당	7	14	녹색당	3	5
기독교민주당	1	10	민중연합당	2	4
민주당	1	4	복지 국가당	1	2
코리아	0	2	친반통일당	1	4
일제 · 위안부 · 인권정당	0	1	통일한국당	0	4
개혁국민신당	0	1	한국국민당	0	1
고용복지연금 선진화연대	1	1	한나라당	1	2
공화당	1	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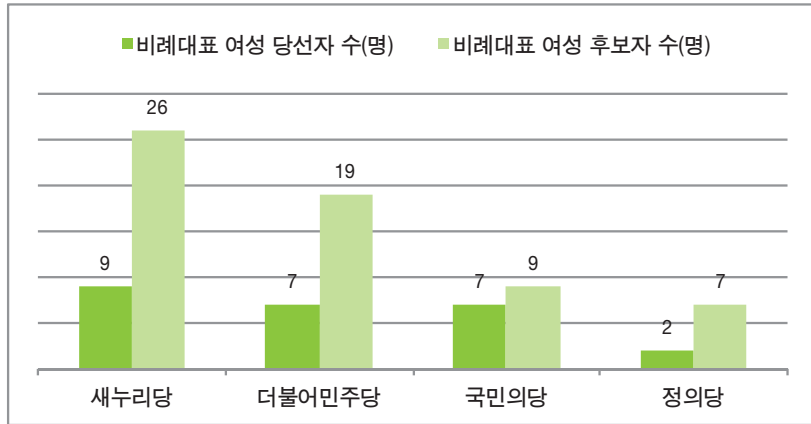
주: 비례대표 후보자가 부재한 정당은 제외

자료: 중앙선거관리위원회(<http://info.nec.go.kr>), 검색일: 2016년 4월 10일.

새누리당에서는 44명의 비례대표 후보자 중에서 26명을 여성으로 배정하여, 17명의 비례대표 당선자 가운데 9명이 여성 당선자이었다. 더불어민주당은 34명의 비례대표 후보자 가운데 19명을 여성 후보자로 지정하고, 13명의 당선자 중 7명의 당선자가 여성이었다. 국민의당은 18명 중 9명이

여성 후보자이었고, 더불어민주당과 마찬가지로 13명의 당선자 중 7명이 여성 당선자였다. 정의당의 경우, 14명의 후보자 가운데 7명이 여성 후보자로, 당선자 4명 중에서 절반인 2명이 여성 비례대표 국회의원으로 선출되었다.





자료: 중앙선거관리위원회(<http://info.nec.go.kr>), 검색일: 2016년 4월 15일.

[그림 5] 정당별 비례대표 여성 후보자 및 당선자 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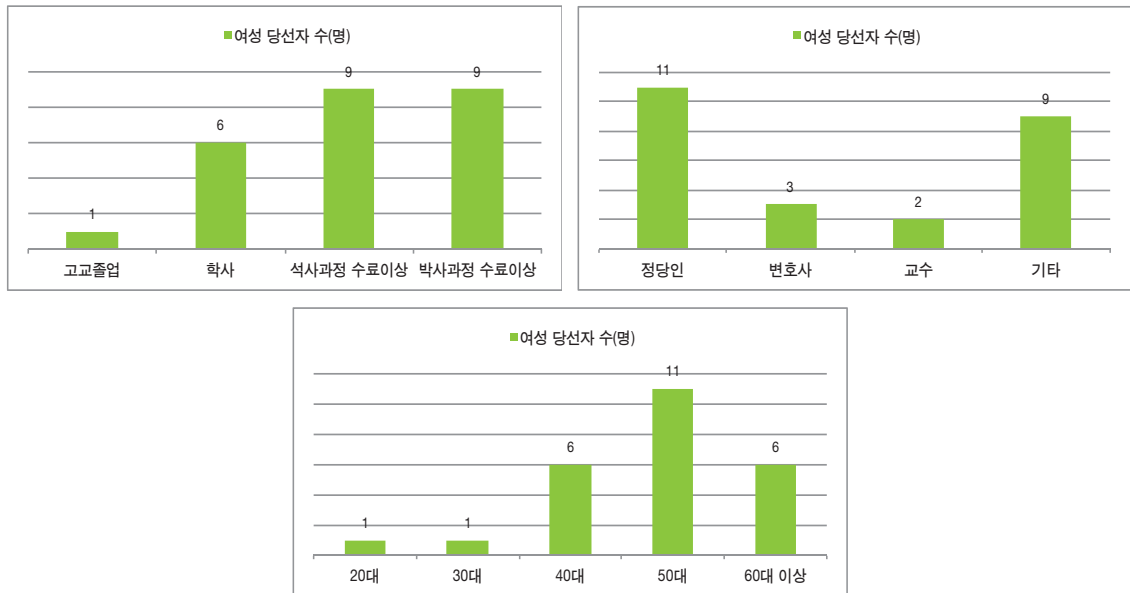
비례대표 여성 당선자는 총 25명으로, 새누리당에서는 송희경, 임이자, 최연혜, 신보라, 전희경, 김승희, 윤종필, 김순례, 김현아 등 9명이며, 더불어민주당에서는 박경미, 송옥주, 이재정, 문미옥, 제윤경, 권미혁, 정춘숙 등 7명, 국민의당에서는 신용현, 박주현, 박선숙, 김수민, 김삼화, 장정숙, 최도자 등 7명, 정의당에서는 이정미, 추혜선 등 2명이다.

〈표 4〉 비례대표 여성 당선자 명부

정당	추천 순위	성명	정당	추천순위	성명
새누리당	1	송희경	더불어민주당	9	제윤경
	3	임이자		11	권미혁
	5	최연혜		13	정춘숙
	7	신보라	국민의당	1	신용현
	9	전희경		3	박주현
	11	김승희		5	박선숙
	13	윤종필		7	김수민
	15	김순례		9	김삼화
	17	김현아		11	장정숙
				13	최도자
더불어민주당	1	박경미	정의당	1	이정미
	3	송옥주		3	추혜선
	5	이재정			
	7	문미옥			

자료: 중앙선거관리위원회(<http://info.nec.go.kr>), 검색일: 2016년 4월 15일.

비례대표 당선자들을 학력별, 직업별, 연령별로 분류하면, ‘대학원 석사과정 수료 이상의 고학력자인 중장년층인 정당인’이 대다수를 차지한다. 먼저, 학력면에서 대부분의 당선자가 학사 이상의 학력을 소지하고 있다. 당선자의 직업으로는 정당인과 변호사 및 교수가 다수를 차지하고 있으나, 기업 및 노동 분야의 전문가, 사회단체 관련 활동가도 여럿 존재한다. 연령면에서는 20-30대가 소수이며, 과반수 이상이 50대 이상이다.



자료: 중앙선거관리위원회(<http://info.nec.go.kr>), 검색일: 2016년 4월 15일.

[그림 6] 학력별-직업별-연령별 비례대표 여성 당선자

제17대부터 제19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지역구 여성 당선자인 43명 가운데 비례대표 국회의원으로 의정활동 경험을 가진 자는 24명으로, 전체 여성 당선자의 55.8%에 달하였다. 제17대 총선에서는 지역구 여성 당선자 10명 중 5명이 과거 비례대표 국회의원이었으며, 제18대에는 14명 중 9명, 그리고 제19대에는 19명 중 10명이었다. 더 나아가 제20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비례대표 경험을 가진 지역구 여성 당선자는 14명으로 전체 지역구 여성 당선자 중 53.8%를 차지한다.

이처럼 제16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비례대표직에 여성할당제가 도입되고 제18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교호순번제가 적용되면서 여성 국회의원 수는 크게 증가하였을 뿐만 아니라, 비례대표 국회의원의 경험을 바탕으로 지역구 활동까지 정치활동의 폭을 넓힐 가능성이 높아졌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제20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이 교호순번제에 어긋나게 15번에 남성 후보자를 배치하거나 신생 소수정당들이 비례대표직의 여성할당제를 지키지 않은 점에 대한 법적 제재가

어렵다는 점, 그리고 근본적으로 현행 여성할당제의 제한적인 효과성에 대해 여전히 여러 비판이 존재한다는 점에서, 지방의회처럼 국회 비례대표 여성할당제의 의무화를 적용하는 것이 필요하다.

#### 참 · 고 · 문 · 헌

김원홍. (2016), "여성과 정치", 「여성학 강의자료」, 건국대학교

중앙선거관리위원회(<http://info.nec.go.kr>), 검색일: 2016년 4월 10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http://info.nec.go.kr>), 검색일: 2016년 4월 15일.

# 제20대 총선 주요정당 여성 정책공약 비교

이현출  
건국대학교

## 1. 들어가며

'일하는 국회'를 기치로 내건 제20대 국회가 지난 6월 13일 개원식과 함께 18개 상임위원장을 선출하면서 본격적인 의정활동을 시작하였다. 20대 국회는 역대 최다 여성 국회의원(51명)을 배출하면서 여성의원들의 활발한 의정활동이 기대되기도 한다. 20대 국회의 의정활동을 전망하기 위해서는 총선 과정에 제시된 정책공약에 대한 분석이 필요할 것이다. 대의민주주의에서 국민들은 주기적으로 열리는 선거를 통하여 대표자 선출에 참여하는 것이 주권행사의 기본적 방법이다. 선거를 통해 주요한 현안에 대하여 선호를 표출함으로써 대표자에게 자신의 입장을 전달하고 이를 법적·제도적으로 실현될 수 있도록 압력을 가하게 된다. 따라서 유권자의 참여는 주로 선거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으며, 이 과정에서 표출된 국민의 선호가 제대로 입법이나 정책으로 반영되었는지 여부를 다음 선거에서 판단의 기준으로 삼는다. 즉 정책 매니페스토(manifesto)는 향후 당선 후 지켜나갈 유권자와의 약속이요 의정활동의 비전이 될 것이다. 따라서 20대 국회 여성 정책 관련 의정활동 전망을 위해서는 선거과정에 표출된 각 정당의 공약분석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제20대 총선은 여느 선거와는 달리 '이슈없는 선거'가 특징이었다. 탄핵이 쟁점이된 17대 총선, 뉴타운과 대운하가 쟁점이된 18대 총선, 무상급식과 한미 FTA가 쟁점이된 19대 총선과는 달리 20대 총선에는 후보등록 전날까지 공천논쟁만 벌이는 등 정책이 실종된 선거였다. 정책은 안보이고 감정에 호소하는 선거로 일관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각 정당이 선거과정에 제시한 여성정책공약은 주로 일·가정 양립지원과 경력단절 여성 일자리 창출 등을 통한 여성의 경제력 강화에 역점을 두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정책공약에서 우리 시대의 고민이 고스란히 담겨 있음을 알 수 있다. 우선 '우리 아이 어떻게 키울까?'라는 워킹맘들과 '우리 재취업 가능할까?'라는 200만 경력단절여성들의 고민이 담겨있는 공약이라고 할 수 있다. 반면 지역여성의 현안이나 요구사항을 반영한 지역구의 개별 후보차원의 여성공약은 전반적으로 드러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여성신문에 따르면 지역구 943명 후보 중

여성공약을 노출한 후보는 40여명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여성신문2016/03/17).

## 2. 여성정책공약의 특징

먼저, 여성정책공약의 정책분야별 분포를 살펴보자. 양성평등기본계획의 비전과 목표를 실현하기 위한 정책과제는 7대 대과제와 22개 중과제로 구성된다. 이 중 7대 과제의 분류 항목에 따라 제20대 총선에서 제시된 공약을 분류하면 다음의 <표 1>과 같다.

<표 1> 제20대 총선 여성정책공약의 정책분야별 분포(교섭단체 구성정당)

분야	새누리당	더민주당	국민의당
여성대표성 및 참여확대	-	-	-
여성의 경제적 역량 강화	· 경력개발형 새일센터확대 · 경력단절여성 국민연금 확대	· 직장내 성차별 근로감독 강화 · 여성새일센터 확대:2019 200개 · 여성고용의무할당제 도입 · 여성창업지원	· 여성감정노동자 처우개선 · 경단녀 지원확대: 일가정양립지원사업장 확대, 창업지원 · 남녀차별없는 근로조건 정착
일·가정 양립확산	· 마더센터 설립 · 가족친화인증기업 인센티브확대 · 유연근무제 확대 · 아이돌봄서비스36개월까지 확대 · 맞춤형 초등돌봄교실확대 · 국공립어린이집,유치원 확충	· 100% 국가책임 0-5세 보육·교육 · 국공립 어린이집 30%까지 단계적 확충 · 0-5세 보육료 표준보육비 수준지원 · 남성육아휴차: 30일 이내 20일 유급 · 육아휴직 급여 통상임금의 100% · 취학자녀돌봄휴가제 · 6세미만 독감접종무료화 · 난임지원 확대	· 산전후휴가 120일로 확대 · 육아휴직급여 50%로 상향 · 육아중 여성 국민연금혜택확대(양육크레딧) · 산모 의료지원 (산모전담간호사제, 출산육아 원스톱 상담센터) · 한부모 양육비 지원강화
폭력근절 및 인권보호	· 여성폭력피해자 지원인프라확대 · 성폭력사건 2차피해 방지 · 여성폭력예방체계 강화 · 아동복지진흥원설립	· 여성폭력 피해자 지원체계강화 · 가정폭력 초기대응 및 가해자 처벌강화 · 성산업 및 성착취근절 · 몰래카메라 이용범죄, 스토킹 등 처벌강화	· 가정폭력예방 · 성범죄 피해자 인권보호 · 몰래카메라 범죄 처벌강화
양성평등의식과 문화확산	-	-	-
양성평등한 복지 및 건강증진	-	-	-
양성평등정책 추진역량강화	-	-	-

제17대, 제18대 총선의 경우 각 정당은 여성 정책 공약에서 전반적인 여성정책을 포괄하여 제시하였다. 그러나 제19대 총선부터 각 정당은 자당의 강조 분야에 정책 초점을 맞추는 경향을 보여주었다. 그 결과 새누리당과 자유선진당은 보육 및 모성문제와 일-가정 양립에 초점을 맞추었고, 민주통합당과 통합진보당은 양성평등 사회와 경제적 자립에 무게중심을 두었다. 이번 총선에서 각 정당은 7대 여성정책 과제 영역 중에서 여성의 경제적 역량 강화, 일·가정 양립확산, 폭력근절 및 인권보호로 집중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것은 여성정책 전반을

망라형으로 열거하는 것 보다 선택과 집중으로 여성들에게 어필하려는 의도로 분석된다.

다음으로 각 정당은 여성정책공약에 어떤 비중을 두고 있는지 알아보자. 정책매니페스토는 각각의 개별 공약도 중요하지만 공약의 우선순위도 중요하다고 볼 수 있다. 정책공약의 우선순위를 살펴봄으로써 정해진 자원과 추진기간의 제약속에서 실천의지를 확인할 수 있기 때문이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http://info.nec.go.kr>)에 등록한 각 정당의 10대 공약을 살펴보면 다음의 <표 2>와 같다.

<표 2> 10대 공약중 여성정책 우선순위

순위	새누리	더민주	국민의당	정의당
1	내수산업활성화(일)	소득하위 70% 노인기초연금 30만원	미래형 신성장산업육성	√월급이 오르는 경제 (성별임금격차)
2	√미래성장동력육성(일)	청년일자리	바른 정치	일자리가 좋아지는 경제
3	국민맞춤형 일자리(경력단절여성)	√성평등사회	복지증진	경제민주화
4	√가계부담경감(경력단절여성 1인1연금)	경제민주화(대중소기업 균형발전)	청년-공정한 출발	조세개혁
5	사교육비 경감	가계부채대책	일자리와 임금격차해소	정의로운 복지
6	주거안정	한국형 복지국가	어르신 빈곤제로	농촌과 지방 발전
7	소상공인 지원	양극화해소	사교육비 경감	탈핵 2040
8	공정사회 구현	국민연금 혜택확대	√성평등과 사회적 약자	한반도비핵화-평화체제
9	서민금융보호	건강보험기준 합리화	협동과 상생의 농어촌	√인권사회
10	아동복지	한반도통일한국	안전한 먹거리, 환경	정치개혁

위의 <표 2>에서 보는 바와 같이 새누리당은 10대 공약에서 여성정책을 별도로 제시하지 않고 2순위 일자리 정책과 4순위 가계부담 경감 정책에 포괄하여 여성정책을 제시하고 있다. 이에 반해 더민주당은 3순위에 '성평등 사회' 공약을 별도로 제시하고 있으며 국민의당도 8순위에서 '성평등과

사회적 약자' 공약을 제시하고 있다. 정의당도 1순위에 '월급이 오르는 경제'를 제시하고 그 가운데 성별 임금격차 해소 공약을 제시하고 있으며, 9순위에 인권사회 공약을 제시하고 여성인권 보호를 위한 세부공약을 제시하고 있다.

새누리당은 경제문제에 초점을 맞추어 여성정책을



마련하였다. 경력단절여성의 재취업 기회를 확대하기 위한 방안과 함께, 경력단절 주부의 국민연금 추납을 허용하는 내용을 내세웠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차별없는 일자리’와 ‘일·가족·생활 균형 실현’ 등을 부각시키는 동시에, 여성폭력을 근절하기 위한 방안을 제시하였다. 국민의당 역시 경제분야와 함께 보육분야에 초점을 맞추고 다양한 관련 법안 개정 계획을 제시하는 등 구체적 시행방안을 발표하였다. 정의당은 성별 임금격차 해소 등의 경제분야 정책과 더불어, 복지와 인권에 초점을 맞춘 정책을 마련하였다.

### 3. 분야별 공약 분석

#### 가. 보육정책

보육정책은 일-가정 양립을 위해 매우 중요한 정책이며, 여야 모두 국가가 보육 책임을 져야 한다는 데 대해서는 한목소리를 내고 있으나 실천방안에서는 차이를 보이고 있다. 원내에 진출한 4개 정당은 모두 국·공립 보육시설(어린이집 및 유치원) 확대를 전면에 내걸었다. 하지만 현행 5% 수준대인 국·공립 어린이집을 전체의 30%(기존 민간 어린이집 매입·장기임대하는 방식 활용)까지 단계적으로 확대하기로 한 더불어민주당이나 미설치 지역을 중심으로 445개를 우선 설치하겠다는 방침을 정한 정의당 외에는 구체적인 목표치도 정하지 못했다. 보육시설 추가 설치에 관해 지역자치단체 및 사설 보육기관과의 협의·조율이 필수적이지만 어느 당도 세부적인 실현 방안을 내놓지 못한 상황이다.

각 당의 보육정책을 세부적으로 살펴보자. 새누리

당은 임신·출산·육아관련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하고, ‘마더센터’를 전국에 도입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임신에서 입학까지’라는 슬로건을 걸고 내세운 마더센터에서 임신, 출산, 보육, 입학 등 경험을 나누고 경력단절 여성의 일자리를 제공하는 열린 카페로 운영하겠다는 구상이다. 이를 위해 여성가족부·보건복지부·교육부에 분산된 출산·보육·돌봄서비스를 통합하고, 은행 등 금융기관과 대형마트 등 유통기업과도 민관협력 체계를 구축해 운영한다는 계획이다. 관(官) 주도로 마더센터가 운영되면 기존의 유사기관인 사회복지시설들과 어떤 차별점을 둘 수 있을지가 관건이다.

또 현재 생후 24개월까지 지원하는 아이돌봄 서비스를 36개월까지 확대하고, 초등학교 1~2학년을 대상으로 하는 초등돌봄교실을 2020년까지 2만명 확대하겠다고 공약하였다. 이와 함께 국공립 어린이집 및 유치원 확충, 아동복지진흥원 설립, 아동학대 관련 예산 상향조정 등의 공약을 제시하였다. 그러나 대부분 지난 대선 때 발표됐거나 이미 정부가 추진 중인 내용들이라는 비판이 제기되기도 한다.

더민주당은 보육여건 개선을 위한 제도 확충에 주안점을 두고 있다. 더민주당은 0~5세 교육·보육비를 100% 국가 부담으로 하겠다고 공약하였다. 만 0~2세 영아 보육료 및 만 3~5세 어린이집 누리과정, 만 0~5세 가정양육수당 소요비용 전액을 국고에서 부담하겠다는 것이다. 0~5세 보육료도 표준보육비용 수준으로 지원하겠다고 하였다. 6세 미만 아동 독감예방접종 무료화, 국공립 어린이집 전체 30%까지 단계적 확충 등을 공약했다.

또 남성의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을 현행 ‘5일 이내 3일 유급’에서 ‘30일 이내 20일 유급’로 대폭

확대하고 현행 통상임금의 40% 수준인 육아휴직 급여도 100%로 올리기로 공약하였다. 아울러 취학자녀의 학교생활 적응을 위해 3개월의 유급휴가를 주는 '취학자녀돌봄휴가제'를 도입하여 일·가정 양립을 위한 아이돌봄체계를 강화하고자 하였다. 한편 난임 지원 대상과 범위를 확대하기로 하고 저소득층에 대해서는 자기부담비용을 국가가 지원하고, 난임시술에 동반되는 각종 검사와 투약 및 처치비용에 건강보험 적용을 확대하겠다고 하였다.

국민의당도 보육여건 개선을 위한 제도확충에 주안점을 두고 있다. 현행 90일인 산전·후 휴가를 120일로 확대하기로 하고, 육아휴직 급여도 현행 급여의 40%에서 50%로 상향 조정하기로 하였다. 육아 중인 여성에 대한 국민연금 혜택을 확대하여, 국민연금 10년이상 가입·노령연금 수급권자·두자녀 이상 조건 만족 시 지급되는 추가 연금인 출산크레딧을 양육 크레딧으로 확대하여, 첫째 아이부터 적용하고 크레딧 인정기관도 확대하겠다고 공약하였다.

아울러 산모에 대한 의료지원을 확대하고, 한부모 양육비 지원도 강화하기로 하였다. 산모전담간호사제 도입, 출산·육아 원스톱 상담센터 설치(월 1회 전담간호사가 건강 체크, 임신·출산·육아에 대한 정보와 노하우 제공, 출산 후 아기 백신 주사 접종시기 관리) 등 만 3세까지 전담간호사가 각 가정을 지원하도록 설계하겠다는 것이다. 또한 한부모센터 지원을 강화해 한부모가정 초기지원에 역점을 두고 비양육자의 양육비 이행 강제, 한부모 가정에 대한 상담, 인력, 네트워크 공유 및 지원 우선적용 등을 공약하였다.

정의당도 핀란드형 '마더박스' 지급 등 자녀양육

사회책임제를 강화하고, 영유아보육 국가책임제, 어린이병원비 국가보장제 등을 실시한다는 계획을 내놓았다. 임신부·영유아 간호사 방문 건강관리제도 도입, 출산종합물품 핀란드형 마더박스(100만원 상당) 지급, 육아휴직 파파쿼터제(아빠 의무할당제) 3개월 추가 도입, 출산전후 휴가 확대, 가족돌봄휴가 도입, 육아휴직급여 인상 등 자녀양육의 사회적 책임을 더욱 강조하고 있다. 국공립 어린이집 확대로 현재 대기자 26만명 해소, 민간 어린이집 서비스 향상(국공립 수준의 교사 처우, 보육거점센터 운영, 보육비용 현실화 및 시설 운영비 지원), 초과보육 폐지, 보육교사 확대, 보육 119 도입으로 안심보육 등 영유아 보육 국가책임제를 강조하였다. 아울러 어린이부터 건강담당자의 사제를 도입하는 등 어린이병원비 국가보장제를 약속하고, 아동학대 신고시스템 정비, 학교폭력 없는 배움터 등을 공약하였다.

## 나. 일자리 정책

주요 정당은 모두 여성 관련 일자리 공약을 두드러지게 제시하고 있다. 육아와 일 양립을 위해서는 휴직제도를 활성화하자는 방안과 기업분위기를 유도하자는 쪽으로 정책방향이 모아지고 있다. 경력단절여성의 재취업에 대해서는 새누리당 더민주당 국민의당 모두 '여성새로일하기센터(새일센터)'의 취업지원서비스를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새일센터는 여성가족부 산하기관으로, 지난해 기준 147개소가 운영되고 있다.

새누리당은 일과 가정을 양립하기 위한 직장문화 개선에 주안점을 두고 있다. 우선 공공기관을 중심으로 근로시간 저축휴가제, 단축 근로제, 시간선택형 근무제 등 여성의 경력 지속성을 보장하기

위한 유연 근무제를 확대하기로 하였다. 일과 가정  
이 양립할 수 있는 직장문화를 갖춘 '가족친화인증  
기업'에는 은행 대출금리 우대, 정부 발주사업 입  
찰시 가산점 부여, 중소기업 정책자금지원시 융자  
한도 우대, 중소기업 보증 심사시 심사우대 등을  
지원하기로 약속하였다. 지난해 현재 가족친화인  
증기업은 1363개로 2020년까지 이를 2500개로  
확대한다는 목표이다.

새누리당은 이와 함께 경력단절 여성들의 취업  
지원 서비스 제공 확대 및 여성의 경제활동참여 활  
성화 공약을 제시하고 있다. 경력 개발형 새일센터  
확대, 경력단절여성 채용 수요가 많은 주요 산업별  
협회와 네트워킹을 통해 좋은 일자리 발굴 강화,  
창조경제혁신센터 등 부처 인프라와 연계해 경력  
단절여성 창업지원 강화, 취업여성의 재경력단절  
예방을 위한 온-오프라인 연계 사후관리 서비스  
및 상담서비스 신규 제공 등이 그 내용이다. 정책  
이 효과를 볼 경우 2015년 연 14만명 수준인 재취  
업 여성이 2019년에는 18만명으로 늘어날 것으로  
전망하였다. 아울러 경력단절주부에게도 국민연  
금 추납을 허용하여 약446만명에게 국민연금 혜  
택을 확대하기로 약속하였다.

더불어민주당은 사회서비스공단을 설립하여 준  
공무원 수준의 공공돌봄서비스 일자리를 확대하겠  
다는 의지를 밝혔다. 대부분이 여성인 돌봄서비스  
종사자의 근로 환경과 임금 수준을 개선하겠다는  
공약이다. 아울러 더민주당은 차별없는 여성일자리  
확충을 강조하였다. 임신과 출산 등에 의한 불이익  
등 직장 내 성차별에 대한 근로감독 및 차별시정 강  
화, 직장 내 성희롱 피해자 보호 및 가해자 처벌 강  
화, 가사근로자(가사·간병서비스 종사자에게 최저  
임금 보장 및 고용보험 적용), 경력단절여성을 지원

하는 새일센터 확대 및 기능 확충(2015년 147개  
→2019년 200개), 여성고용 의무할당제 도입, 창업  
여성에 창업훈련 및 컨설팅·인큐베이팅 등 지원  
확대를 공약으로 제시하였다.

국민의당 역시 '여성친화기업'을 확대하고, 법정  
노동시간 준수제를 강화하는 등 여성 친화적 노동  
환경을 구축하겠다고 공약하였다. 이를 위해 법정  
노동 시간 준수제를 강화하도록 개정, 노동시간 준  
수·임금차별 해소를 위한 공정임금법 제정, 노동  
현장의 현실적인 모니터링 제도 도입 및 강화를 통  
한 상벌체계 실현, 돌봄 노동자의 경력인정 기준  
및 처우개선책 마련 등을 제시하였다. 특히 여성  
감정노동자 처우 개선을 강조한 것이 눈에 띈다.  
블랙컨슈머 리스트 공유 및 처벌 강화, 근로자감정  
지원프로그램(EAP) 활성화, 감정치유 상담비 지  
원 및 산재인정 범위 확대, 감정근로업무 담당자  
순환배치 활성화, 감정근로자 권익보호를 위한 공  
익광고 확대 등이 그 구체적 내용이다. 경력단절  
여성 지원 확대를 위해 새일센터사업 내실화, 노동  
권과 노동 평등권을 보장하기 위한 '남녀고용평등  
과 일가정 양립지원에 관한 법률' 조항의 적용을  
소규모 사업장에서 배제할 수 없도록 개정하겠다고  
공약하였다.

정의당은 일·가정 양립 정착으로 여성경력단절  
문제를 해소하겠다는 방안이다. 임신, 보육까지  
국가책임제 (방문건강관리 등), 3대(임신, 육아, 돌  
봄) 휴가제 확대, 맞춤형 새일센터 지원강화 및 프  
로그램 다양화 등이 골자이다. 이외에도 정의당은  
성별 임금격차 해소를 위해 성별 고용·임금실태  
공시제 도입과 적극적 고용개선 조치를 공약으로  
내걸었다. 정의당은 가족돌봄휴직제를 가족돌봄휴  
가제로 개정하고, 사업주가 거부하기 어렵게 하고

위반 시 처벌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유산율이 가장 높은 임신 초기 때 눈치 보지 않고 쉴 수 있도록 하는 임신휴가제를 도입하는 것도 공약으로 내세웠다.

#### 다. 여성폭력 예방 및 피해자 지원 정책

성범죄 등 여성폭력 예방 및 피해자 지원대책 공약은 4당 공히 관심을 갖고 다루고 있다. 새누리당은 성폭력 문제에 대한 시설과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확충해 나가겠다고 공약하였다. 성폭력 및 가정폭력 피해자의 상담과 지원을 위해 만들어진 '해바라기 센터'와 상담소 등 지원시설을 확대하고, 돌봄비용·간병비·의료비 등 지원 서비스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공약하였다. 또 성폭력 사건 처리 과정에서 2차 피해 방지를 위해 관계자 교육에도 힘쓰겠다는 방침이다.

또 여성·아동 대상 폭력 예방체계 강화에도 역점을 두고 있다. 지역 내 여성폭력예방활동 거점센터 지정 및 통합으로 찾아가는 폭력예방 교육 확대, 여성폭력예방교육강사 국가자격증화 등을 통해 여성·아동 폭력 예방 체계를 전문화하겠다는 공약이다. 아울러 가정폭력 피해아동 사이버상담실 1366 지역센터를 확대운영하겠다고 하였다.

더민주당 역시 성폭력 피해자 지원체계 강화에 역점을 두고 있다. 성폭력·가정폭력·성매매 피해자 지원 시설을 확충하고, 종사자 처우개선 등 지원체계를 개선하겠다는 것이다. 아울러 가정폭력 초기대응 및 가해자 처벌 강화를 위해 상담조건부 기소유예 폐지, 가정폭력 피해자 교정을 위한 감호위탁 시설 설치 등을 약속하였다.

또한 성매매 피해여성에 대한 비범죄화로 성산업 및 성착취를 근절하겠다는 의지를 밝히고 있다.

국민의 당과 함께 몰래카메라 이용 범죄 및 스토킹·데이트 폭력 처벌 강화에도 관심을 보이고 있다. 성희롱·성매매·성교육 및 성폭력·가정폭력 예방교육의 내실화도 공약으로 제시하고 있다. 폭력예방교육 전문강사 역량강화와 체계적 관리체계 구축, 폭력예방교육 실적 점검 및 이행관리·감독 강화, 교육참가자의 평가를 다시 교육내용에 반영하는 효과서 평가 환류시스템 마련 등이다.

국민의당은 성폭력 재판과정에 대한 법률조항을 강화해 피해자의 인권을 보호할 방침이다. 성범죄와 관련해 형사사법 절차에서 2차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며, 재판과정에서 피해자의 과거 성편력이 논의될 경우 재판장이 이를 즉시 중단시킬 수 있는 의무조항을 신설키로 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를 개정해 몰래카메라 범죄에 대한 처벌도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공공시설에서 몰카로 찍은 촬영물은 가장 처벌하고, 유포협박 및 몰카 촬영물 유통사이트 운영자에 대한 처벌규정을 명시하고 사이트를 폐쇄하는 등의 영상물 유포 협박에 대한 처벌을 강화한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가정폭력 예방 노력을 위하여 부모·교사·의료진 등 아동학대 신고 의무자 예방교육을 의무화하고, '가정폭력전과공개법'을 추진하겠다고 공약하였다.

정의당은 최근 늘어나고 있는 데이트폭력, 스토킹, 온라인폭력 등의 대응체계를 강화하겠다는 공약을 제시하였다. 우리나라 여성 2명 중 1명이 경험있는 '데이트폭력'에 대해서는 데이트 상대방의 전과를 조회할 수 있는 '클리어법'(영국의 가정폭력전과 공개제도)도입을 검토하겠다고 하였다. 온라인 폭력에 대처하기 위하여 온라인 인권교육본부도 설립하겠다고 약속하였다. 정의당은

성형·미용사업이 ‘마르고 정형화된 미’를 여성에 강요하고 건강을 해친다며 이들 산업을 제한하겠다는 약속도 했다. 구체적으로는 입사지원서에서 직무관련 능력 외에 용모를 평가할 수 있는 기준을 삭제하기로 했다. 마른 체형을 선호하는 광고나 성형 수술을 권하는 광고나 웹사이트도 제한한다는 방침이다.

#### 4. 결론

일·가정 양립지원과 여성경제적 역량 강화(경력단절여성 재취업 활성화 등)에 집중된 제20대 총선 여성정책공약은 시대적 고민과 그 맥락을 함께하고 있다고 평가할 수 있다. 저출산시대 일과 가정을 지키려는 워킹맘들의 고민인 보육문제와 일자리가 없는 시대에 여성친화적 일터와 취업지원은 이 시대의 핵심과제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제20대 국회에서 정책으로 생산하기 위한 원론에는 여야가 공감하고 있어 향후 공동 입안도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각 정당이 제시한 공약에는 문제의식은 공감하고 있으나 구체적 실행전략은 취약한 실정이고 재정부담도 고려하지 않은 세부 실천과제들이 많이 포함되어 있다. 또한 각 정당이 제시한 공약이 기업에서는 어떻게 수용될 수 있을지 많은 고민이 있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내년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워킹맘을 위한 포퓰리즘 정책으로 치닫지

않도록 많은 사회적 공론화 과정이 필요하다고 본다.

입법전략상 공통분모가 존재하는 공약은 우선적으로 입법화하는 노력도 필요하다고 본다. 새누리당 마더센터와 국민의 당 출산·육아 원스톱 상담 센터 등을 공통분모로 하는 임신·육아·출산 지원시스템을 구축하는 문제나 새누리당과 더민주당이 공통적으로 제시하고 있는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 공약도 조기에 추진이 가능할 것이다. 그러나 이 공약은 지자체와 민간영역과의 협력문제 등 이해당사자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본다. 경력단절여성 창업지원 강화와 여성새일 센터 내실화 등은 모든 정당이 강조하고 있는 공약으로 정책으로 반영될 수 있고, 가시적 성과를 조기에 낼 수 있으리라 본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 당은 모두 최근 부각된 몰래카메라 관련한 범죄에 대한 구체적인 정책을 제시하여 이에 대한 입법도 조기에 가능할 것으로 보여진다.

총선공약을 통하여 오늘날 우리시대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들이 제시되었다. 일과 육아의 양립공약에 있어서 기업 분위기 유도과 휴직제도 지원 등의 정책도 중요하지만 직장에서의 취업규칙 등을 통하여 직장의 문화로 자리잡을 때 여성들이 실질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될 것이다. 특히 여성 비율이 높은 비정규직에게도 제도변화의 효과를 누릴 수 있도록 많은 고민을 해야할 것이다.



### 참·고·문·헌

김원홍.(2012). "제19대 총선과 주요정당의 여성공약 비교," 「젠더리뷰」 제24호, pp. 12-20.

이현출.(2006). 『매니페스토와 한국정치개혁』. 서울: 건국대학교 출판부.

#### 〈인터넷 사이트〉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http://info.nec.go.kr>) 최종검색일: 2016년 5월 10일

새누리당([www.saenuriparty.kr/web/policy/pledge/pledge\\_main.do](http://www.saenuriparty.kr/web/policy/pledge/pledge_main.do)). 최종검색일: 2016년 4월 10일.

더불어민주당.

([www.theminjoo.kr/wp-content/uploads/%EB%8D%94%EB%B6%88%EC%96%B4%EB%AF%BC%EC%A3%BC%EB%8B%B9\\_2016%EB%85%84\\_20%EB%8C%80%EC%B4%9D%EC%84%A0\\_%EC%A0%95%EC%B1%85%EA%B3%B5%EC%95%BD%EC%A7%91.pdf](http://www.theminjoo.kr/wp-content/uploads/%EB%8D%94%EB%B6%88%EC%96%B4%EB%AF%BC%EC%A3%BC%EB%8B%B9_2016%EB%85%84_20%EB%8C%80%EC%B4%9D%EC%84%A0_%EC%A0%95%EC%B1%85%EA%B3%B5%EC%95%BD%EC%A7%91.pdf)). 최종검색일: 2016년 4월 10일.

국민의당([people21.kr/wp-content/uploads/2016/03/People\\_Party\\_20th\\_election\\_promise.pdf](http://people21.kr/wp-content/uploads/2016/03/People_Party_20th_election_promise.pdf)). 최종검색일: 2016년 4월 10일.

정의당([www.justice21.org/newhome/policy/20book\\_2.pdf](http://www.justice21.org/newhome/policy/20book_2.pdf)). 최종검색일: 2016년 4월 10일.